

**2026년 FFTC, 농진청-AFACI 워크숍
참석 및 저탄소 농업 정책 발표 출장 보고
- 베트남 깐터(Can Tho)**

2026. 7

I. 출장 개요

□ 목적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저탄소농업 인증제 관련 경험을 국제세미나에서 공유하고 우리나라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도출
 - 한국의 저탄소농업프로그램과 저탄소농업 인증제 관련 경험 공유
 - 대만, 베트남, 태국의 저탄소농업 기술과 관련 정책 검토
 - 우리나라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도출

□ 기간·장소 및 출장자

구분	내용
출장기간	‘26.7.20(월) ~ 7.25(토)
출장지역	베트남 켄터(Can Tho)
출장자	박형호 부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출장자 주요 업무

- 저탄소농업프로그램과 저탄소농업인증제 국제세미나 참석 및 발제
 - 우리나라 농업(경종)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제도 특징 및 시범사업 성과, 국내외 저탄소농업 기술 및 인증 사례, 정책적 시사점 등 발제
- 해외 저탄소농업 기술 및 지원 제도 등 정책 파악
 - 베트남, 대만, 태국의 저탄소농업 기술 도입 현황, 지원정책 파악
 - 베트남, 대만, 태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부문 저탄소 기술 및 지원 제도 개선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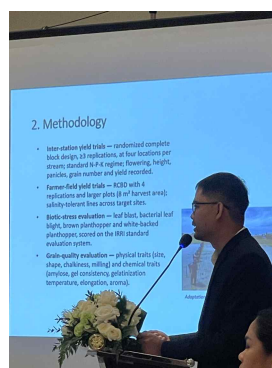
□ 출장 일정

일자	주 요 내 용	비고
7.20(월)	- 인천(10:05) → 하노이(12:35) - 하노이(16:35) → 껀터(18:50)	
7.21(화)	-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RSR(지역 스트레스 내성 벼 품종), 기후스마트 벼 품종 및 환경 위험에 대한 회복력 연구 평가 워크숍 참석 - 국가별 RSR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 계획 논의 - 패널토론	
7.22(수)	- 논벼 저탄소 농업 기술(감축) 및 품종 발표 - 국가별 저탄소 벼 농업 사례 공유	
7.23(목)	- 디지털 MRV 및 탄소관리 체계 논의 - 저탄소 벼 확산을 위한 정책·인센티브 논의 (한국 사례 발제)	
7.24(금)	- 껀터(09:35) → 하노이(11:50) - 하노이(23:10) → 인천(05:25)	

II. 주요 활동

1. (7/21) Registration of Stress-Tolerant Rice Varieties (RSR), Climate Smart Rice Varieties and their resilience to environmental risks in Asia Evaluation 워크숍 일정에 참여함.

- 본 워크숍은 11개국(미얀마는 국내 정세 불안으로 미참여)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벼 육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 2단계를 거쳐 3단계 첫 성과평가 보고, 아이디어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협의체 워크숍임
- 총 10개국이 본 프로젝트의 운영 계획 및 폭염, 가뭄, 범람 등 중점 검토 대상 재해를 공유함.
- 과제 총괄인 Dr.Mary jean Du는 10개국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서, IRRI는 Trait Factory(형질공장) 접근법을 통해 시장 주도 품종의 DNA를 최대 99%까지 보존하면서 가뭄·염분·침수·병해충 저항성 등 다수 형질을 동시에 도입한 개량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방식은 기존 육종 대비 10~20%의 수량 증대와 필리핀·미얀마·방글라데시 등에서는 내염·내침수 품종이 출시되었다고 성과를 요약함.
- 그러나 기후저항성 품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종자체계·디지털농업·농민 교육·정책지원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수적이고, 협력 육종과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아직까지 내재해성 품종 개발에만 중점하고 있지, 저탄소 농업을 위한 육종에는 연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21일 워크숍 참석자 단체사진 및 발표 사진

2. (7/22~23) Low-Carbon Rice Solutions in Asia: Regional Innovations and Pathways to Adoption 워크숍에 참여하여 23일에 한국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함.

□ 22일 세션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발표는 Dr. Le-Thanh-Tung의 베트남 저탄소 벼 재배 통합 패키지 사례 연구임.

○ 저탄소 벼 생산으로의 대규모 전환은 개별 기술 도입만으로는 안되며, 생산·환경관리·dMRV·가치사슬·탄소시장을 아우르는 시스템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으로 개별 기술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농장 단위 개입을 경관계획·서비스제공·시장 인센티브·정책지원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벼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핵심임을 밝힘

○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고품질·저탄소배출 벼 100만ha 프로그램이 출범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따라 벼 생산을 재편하는 동시에 경쟁력, 기후 회복력,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녹색 성장과 국제 기후 공약 이행을 위한 전환 이니셔티브의 성격을 가짐

- 이 프로그램은 고품질·저탄소배출 생산 관행, 물 관리 최적화, 디지털 농업, 베트남 녹색·저탄소배출 벼 브랜딩을 포괄함
- 저탄소배출 벼 브랜딩 및 인증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 접근, 성과 기반 기후 금융(result-based climate finance), 그리고 향후 탄소 크레딧 시장 참여 기회를 만들어 농민들의 수용성 제고와 민간 부문 투자를 유인함
- 파일럿 테스트 결과 기술·디지털화·가치사슬·파트너십·제도적 지원을 통합할 경우 지속가능한 관행의 채택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수익성 및 환경적 성과를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이를 확산하기 위해 협동조합, 정부 기관, 투입재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자, 금융기관, 미곡 매입자 등 다양한 주체

의 협력을 도모함

- 출장자는 23일 오후 정책발표 세션에서 ‘한국의 저탄소 벼농사 전환: 논물관리 진전·농가 수용성·정책연계’를 주제로 발표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농업의 비중이 미약하지만, 담수 논에 메탄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감축 가능한 부문으로,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성이 높은 감축수단의 현황과 확대 방안을 제안함.
-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저탄소농산물인증제와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을 소개하고, 2024년 수행한 벼 농가들의 저탄소농업 기술 수용성 조사 결과를 공유함.
 - 농가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중간물떼기(89%) 및 논물얇게걸러대기(69%)의 채택률도 매우 높은 편인데, 각각의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중간물떼기는 기술지식 부족, 논물얇게걸러대기는 불균평한 포장인 이유였고, 이에 대응하여 요구사항도 달랐음을 공유함.
 -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의 이행율을 살펴보고, 등록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규모 확대는 이루어지나, 이행률의 지속적 하락은 2030 NDC 달성의 위협요인으로 실질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행완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전달함.
 - 두 가지 프로그램의 데이터 및 검증체계 공유,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감축기술 도입의 이행완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기술보급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함.
-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온실가스 감축이 되어야 한다면, Baseline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적(Additive)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미 중간물떼기와 논물얇게 걸러대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감축기술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일본의 Dr. Yasuhito Shirato의 질문이었음.

- 우리나라는 국가 인벤토리에서 상시 담수를 baseline으로 잡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모든 활동들이 감축기술이자 실적으로 쌓일 수 있음을 응답함.
- 이에 더해, 현재는 각각의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복합 감축 기술로 중간 물떼기와 논물얹게걸러대기를 결합한 배출계수를 등록하여 관리할 것이란 것을 설명하였고, 설문조사에서는 기술 도입률이 매우 높게 나왔지만, 이들은 KREI 리포터로서 선도농가들이 대상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중간 물떼기는 절반 이상이 도입하고 있지만, 논물얹게걸러대기는 아직 도입률이 높지 않아 추가적 감축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



22~23일 워크숍 발표 사진